

1. 미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

미술은 자연과 인간, 문명과 인간, 그리고 사회와 인간 사이의 거리를 표현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알타미라 동굴 벽화는 삶의 척박함과 기쁨을 동시에 표현하고 라스코스 동굴벽화 역시 동물과의 일체감을, 교토 진고지(Jingoji Temple/神護寺)의 약사여래상(치유의 부처)은 인간의 억압과 기원을 표현한다. 삶의 가혹함과 고독이 깊어질수록 이러한 예술작품의 표현도 보다 생생해지며 심원해진다.

지구 환경의 붕괴가 임박해 있으며 세계화가 확산되고 있다. 인간은 분류화되며 인간의 육체와 오감은 점차 마비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일본의 정치적 전망은 암울하며 사회에서의 격차는 보다 확대되고 있다.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일본해 연안을 따라 형성된 일본의 다설지대는 부드러운 토양으로 덮여 있으며 노인 인구의 거주비율이 높다. 이 지대에 속한 산악지형은 그대로 버려질 것인가?

기회의 평등, 민주주의,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의 지방배분 등은 20세기에 지지받았던 이상이었다. 현재 최소한의 이상마저 망각한 국가나 도시는 자치단체 간의 통합정책을 통해 지방을 더욱 소외시키고 경제성만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에치코-추마리 프로젝트(the Echigo-Tsumari Necklace project)는 이원적이며 이러한 결정적 상황의 와중에서 착안되었다. 나는 합병의 정치적, 경제적 양상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문화, 즉 삶은 특정 지역에 내재되어 있으며 풍요로운 인간은 이러한 근간이 없이는 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도전은 극단적으로 왜곡된 관료주의, 중앙집중화, 고립주의적인 국가 내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민 중심적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2. 일리아 카바코프, 에밀리아 카바코프 그리고 후쿠시마의 타나다

2006년 10월 22일 트리엔날레가 막을 내린 한 달 후 아사히 방송의 한 뉴스프로그램은 토모요시 후쿠시마가 그 해말 타나다(계단식 논)재배를 중단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후쿠시마는 원래 2000년 타나다식 재배를 중단할 생각이었다. 작품 제작을 위해 우리가 처음으로 그에게 타나다를 이용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을 때, 내가 기억하기에 그는 그다지 적극적으로 동의해주지 않았다. 카바코프 부부와 그들의 지원자들은 이 지역의 공동체, 이 지역 사람들의 삶 그리고 농업을 연구하는데 경탄할만한 노력을 기울였다. 힘든 과정을 거쳐 작성된 제안서는 작품의 창작으로 이어졌으며 이렇게 해서 창조된 작품은 현재까지 여전히 남아있다. 후쿠시마는 제안서를 읽었을 때 타나다식 재배를 중단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으나 이는 작년까지만 지속되었다.

후쿠시마의 타나다는 협소한 땅에 좁고 급한 경사를 따라 형성되었다. 100년 이상 지속돼온 경작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 더 이상 경작을 유지할 수 없는 가혹한 현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의 배후에 놓인 국가정책을 세잔과 같은 그림을 통해서 충분히 만족스럽게 표현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현대미술이 처한 고난과 잠재력을 확인한다. 사람들을 현장으로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대지 소유주와 예술가 그리고 지원자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는 부수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카바코프와 후쿠시마의 논문 사토야마와 타나다를 재현한 작품으로 오늘날 농업과

대지, 그리고 인간 간의 거리를 보여준다.

3. 타인의 땅에서 작품을 창조하는 예술가

카바코프의 작품에서 그렇듯(후쿠시마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진 않았지만) 한 예술가가 다른 사람이 소유한 땅에서 작업하고자 할 때 반대에 부딪히거나 혹은 적어도 저항에 직면하게 됨은 흔히 있는 일이다. 이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대지의 조건을 여러 가지로 살피고 땅 소유주의 의견을 경청한 이후 그 대지가 위치한 지역의 공동체와 농업이라는 조건을 고려하여 제안이 이루어진다면 소유주는 “트리엔날레 기간 중 50일이나 혹은 무제한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이다.”

아마도 미술은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일 것이다. 한 아이의 갑작스런 탄생에 주변 사람들은 당황함을 느낀다. 어린 아이는 생산적이지 못하며 혼자서 생존할 수도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사람들은 “이 아이”에 대해 설명해야 하며 이러한 설명은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끌어낸다. 미술은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생물학적인 존재의 실현으로서 어린아이의 삶과 같지 않은가? 타인 소유의 대지에서 하는 예술작업은 이처럼 폐쇄적이며 수직적으로 분리된 사회를 개방으로 이끈다. 이제야 비로써 소통이 이루어진다.

4. 도시미술

20세기는 도시의 시대(an age of cities)이다. 이 시기의 이상(ideal)으로서 균등한 기회, 민주주의, 생활수준의 향상 등이 추구되었다. 그러나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 1991년 12월 25일 소련 연방의 몰락, 미국에 대한 9월 11일 테러공격 그리고 연이은 전쟁과 혼란에서 보듯이, 균등화 경향, 인간에 대한 강화된 통제, 통합의 확대 등과 함께 세계는 여러 모순의 층위를 하나하나 드러내고 있다. 현대미술은 대량생산과 멀티미디어적 표현을 통해서 잠재력을 보여주며 예술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건축적 공간의 보편화화 함께 “장소”의 평준화 즉, 세계 어느 곳에서든 세계적인 걸작을 만날 수 있는 미술관의 건립이 여기저기에서 이루어졌다.

예술가들은 미술관에서 걸어 나와 거리를 헤매며 작업을 위한 새로운 “장소”를 모색한다. 역으로 미술은 권력을 획득하였다. 1980년대 미술은 종교, 남과 북, 민족, 정치문제 등을 다루기 시작했으며 바이러스, 생활양식의 급격한 변화, 미디어, 성 등의 문제를 탐색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술은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즉 미술은 인간과 문명 사이의 거리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시가 위기에 빠지고 병적인 징후를 나타내기 시작하자 미술적 표현은 음울해지고 고독한 것이 되었다. 미술은 장소와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보여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바로 이 점이 츠마리의 사토야마가 작가들을 끌어 들인 이유라 믿는다. 과거 1,500여 년 동안 농업에 종사해 온 인간이 빚어낸 땅의 풍경과 인생은, 사토야마에 의해 표현된 것처럼, 도시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며, 이미 예술에서조차도 상실되어가는 연대와 협력의 기쁨을 우리가 어느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오늘날 모든 것은 돈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심지어 공간에도 적용된다. 미술관이나 화랑은 사물들의 가치가 장소의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현실 앞에서 무력하다. 돈의 가치에 의해 평가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시간일 것이다. 그러므로 생리학적이며 직관적인 미술은 시간의 재현을 향해 움직인다.

5. 시간의 재현

요시오 키타야마는 2000년도 트리엔날레에 출품하기 위하여 눈 덮인 산악지대의 폐쇄된 학교건물을 이용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검정색,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칠해진 춤추는 용은 일부가 유리섬유로 제작되어 나뭇가지 모양의 대상에 부착되었다. 이 용은 2층의 세 개의 교실, 1층의 교장실과 교무실과 연결된 체육관에 좌·우로 흔들리며 매달려있다. 수많은 날개 달린 모형의자가 다른 공간에 매달려있다. 한 쌍의 날개가 건물 외벽에 솟아나와 건물은 마치 “날아다니는 교실”처럼 보인다. 건물에 들어선 순간 나는 체육관에 아이들이 놀고 있고 그들의 재잘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다. 작가는 겨울철 3개월 동안 학교에서 머무르며 학교건물과 함께 버려진 사진첩을 바라보고 졸업 연설과 작문을 읽었다. 그가 전시에 이용한 재료들은 결국은 버려질 것들이었다. 누군가는 이를 시간의 재현이라 부른다. 작가는 그 지방에 살았던 어린이들, 그들의 부모와 교사들의 시간을 되살려내었다.

6. 지역, 세대, 장르를 초월하는 시골건물과의 만남

트리엔날레가 열리는 에치코-추마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은 단체는 도쿄 출신의 학생들로 구성된 코헤비-타이(작은 뱀)였다. 2000년 봄이 도래하기 전 수십 명의 학생들이 트리엔날레를 홍보하기 위해 눈 덮인 지역을 걸으며 가가호호 방문하고 있었다. 몇몇 학생들은 호통을 당하거나 물 세계를 맞고 울면서 기숙사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이 지역의 노인들에게 젊은이들의 열정과 성실은 마치 신선한 공기와 같았다. 서로 다른 지역, 유형, 세대의 두 집단, 하나는 외딴 산악지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들과 한 무리는 도시지역에서 온 학생들은 갈등과 당혹스러움을 학습, 이해, 협력의 관계로 변화시켰다. 우리는 이를 두고 어린 아이 같은 미술이 이 지역을 개방시켰다고 말한다.

학생들이 도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상징적이며 대체 가능한 것이다.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담보하고 있는 성인에게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세계화나 효율을 추구하는 경향은 인간을 사회의 한 기능적 구성원으로 왜소화시킨다. 이와 대조적으로 시골지역에서 이들 학생들은 매우 중요한 존재로 인식된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인구밀도는 매우 낮아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다. 땅은 점차 황폐화되며 초목이 우거진 산과 강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트리엔날레 기간 중 추마리를 찾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이 적용될 수 있다. 미술을 이정표 삼아 사토야마의 자연을 온몸으로 느낀다. 걸음걸이마다 부드러운 토양, 풀 향기, 신선한 공기를 느낀다. 그들은 신선함을 느끼며 인생을 충분히 산 노인들을 만나며 기쁨을 느낀다. 그들에게 추마리 방문은 우리가 흔히 관광이라 부르는 것과는 다른 체험을 가져다준다.

7. 추마리의 보편성

추마리에는 많은 외국인들도 참가하고 있다. 홍콩대학에서 15명의 학생들이 2006년 트리엔날레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하였다. 2003년과 2006년 트리엔날레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작가인 앤 그래엄의 동료나 학생들이 그녀의 작품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참가하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외국인들의 참여나 외국 언론의 트리엔날레 관련 보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문화를 통한 도시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던 베이징, 상하이, 홍콩, 서울, 타이베이 같은 아시아지역 도시로부터 온 참가자들도 트리엔날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 도시들 모두 변화의 필요를 느끼고 있음이 명백하다.

8. 강력한 지원

트리엔날레는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개최가 가능했다. 처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재정적 지원이나 기부였다. 여기서 특히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소이치로 후쿠타케의 협력으로 그의 지원은 현이나 시의 지원이 감소하고 있었을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

후쿠타케는 교육관련 기업인 베네세 사의 회장으로 나오시마 섬의 박물관 활동으로 유명한 기업인이었다. 그는 2회 트리엔날레에 추마리를 방문하였고 3회 트리엔날레를 지원하였다. 후쿠타케는 오헤비(큰 뱀) 후쿠타케 위원회를 조직하여 기업들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이끌어내고 홍보활동을 지원하였다.

“경제는 문화를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라는 평소 신념으로 그는 문화 활동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사토우미(거주지 근처의 해양지역), 사토야마(인구밀집지역 인근의 삼림지역), 서부의 나오시마, 동부의 추마리 등의 활성화가 일본의 희망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4회 트리엔날레도 그의 노력에 힘입어 많은 희망을 갖게 되었다.

9. 기존의 자원 활용

트리엔날레에 참가한 작가들은 사토야마를 관통해 흐르는 인생과 시간에 형태를 부여하였다. 동시에 그들은 미술의 본질적인 표현의 첫 단계를 각 공동체에 참가한 사람들과 함께 일별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예술가들은 또한 장소와 사람들을 연계시켰다. 더군다나 2006년 트리엔날레에서는 32채의 집, 12개의 학교, 8곳의 가게 등 폐가나 폐교와 같은 사회적 자산이 활용되었다.

이전의 트리엔날레에서 이용되었던 것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63개까지 늘어난다. 지역 공동체의 사람들 또한 트리엔날레에 참가하였다. 프로젝트는 권리나 소유체계를 명명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시켰다. 미술은 미약하나마 사람들과 경제의 움직임을 촉진시켰다. 기존의 존재하는 것들을 철저히 이용하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살아남을 수 없다.

10. 흙

지구는 암석 투성이의 행성이다. 태양계 내에서 지구가 우연히 차지하게 된 위치 덕분에 물이 생겼고 바위가 토양이 되었으며 생명체가 탄생했다. 그리고 생명체는 자신들을 다른 존재들과 차별화시키는 인간으로 진화하였다. 2006년 트리엔날레에는 흙을 이용한 많은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이들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는 논에서 보듯이 물이라는 매개물을 통해서 흙과 인간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흙과의 관계는 우리 손의 움직임을 강화하고 우리를 예술이나 공예로 이끈다. 이는 니가타에서 800여 가지의 다양한 흙을 수집한 고이치 구리타, 흙집을 지은 히로시 후루고리, 거대한 구멍을 통해 흙의 본질을 보여준 치아키 고히나타 등의 작품에 잘 나타나 있다. 흙은 회화, 조각, 공예작품의 토대이다.

11. 식물과 미치니와(도로 옆 화단)

옛 도로를 따라 조성된 화단에 심어진 꽃들은 집주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꽃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지루함을 달래준다. 얼마나 친절한가! 제3회 트리엔날레를 위해 일본 이케바나(꽃꽂이)계의 내노라 하는 예술가들이 코시라쿠라 마을에 모여 현대 이케바나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일본의 꽃꽂이 예술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출발점이 되었다.

12. 비효율성

760평방미터 지역에 산재한 200여 마을에 사는 노인들의 소망은 노년을 편안하고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효율과 생산성을 우선하는 현대사회의 가치와 갈등을 빚는다. 소외되고 상처받기 쉬우며 비생산적인 사람들이 활기차게 살아갈 전망이 없는 사회는 인간적인 사회가 아니다.

우리는 지역민의 참여와 함께 방대한 지역에 현대미술 작품을 설치하려는 우리의 시도가 무모하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다. 그러나 이 지역은 4,500년 전 조몬시대(일본역사에서 기원전 10,000년에서 기원전 300년의 사이: 역주) 중반 이후 불꽃테두리 토기의 원산지였으며 1,500년 동안 벼농사를 짓고 폭설이 그 어느 곳보다 자주 내리며 ‘타나다’라고 불리는 계단식 논을 경작하는 지역이다.

사회적인 자산과 시간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각각의 마을과 노인들은 세계와 관련을 맺고 있다. 우리는 노인들이 걸어 간 길을 따라 걷고 싶다. 우리는 100년 전, 500년 전, 혹은 1,000년 전 어린 아이였을 노인들의 모습을 알 수는 없으나 상상할 수는 있다.

13. 희망

제3회 에치코-추마리 트리엔날레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2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나는 트리엔날레가 다양한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교류와 삶의 장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주민들은 여름에 일하고 겨울에는 읽고 배우는 장소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 또한 주민들은 주도적이며 방문객들로 활기를 띠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 이곳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인생을 향해갈 때 지혜, 용기, 호기심, 정직함을 지녀야 한다. 이것이 나의 희망이자 소원이다.